

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2022. 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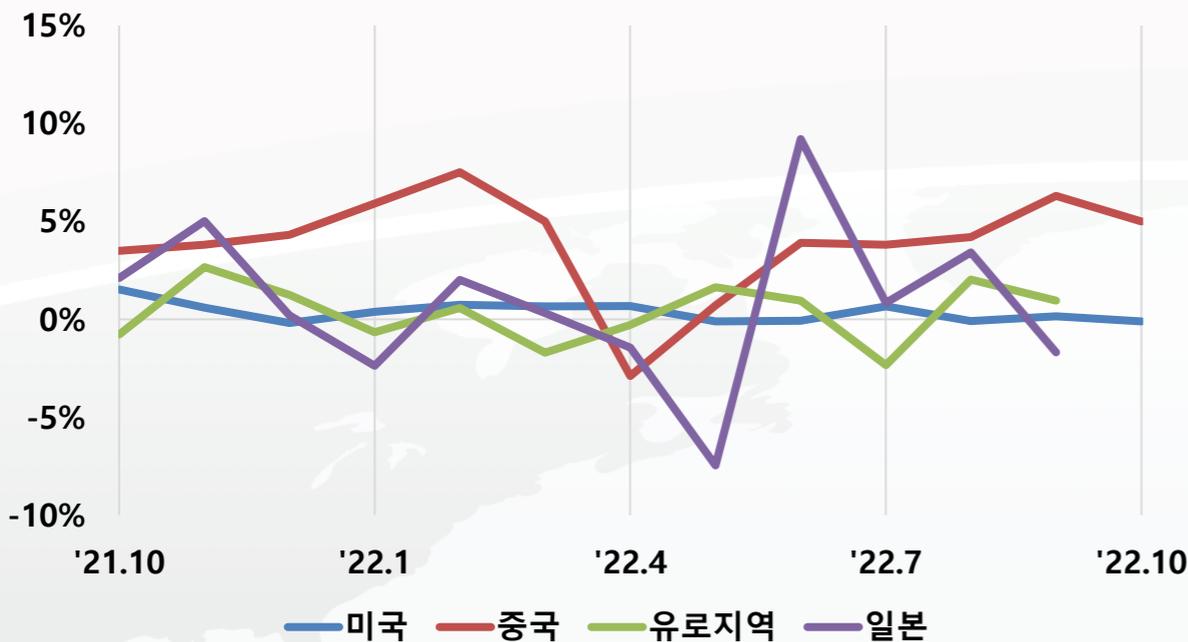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세계 경제동향

■ 주요국 경제동향 : 글로벌 경제 전반적 둔화 지속, 미 물가상승 압력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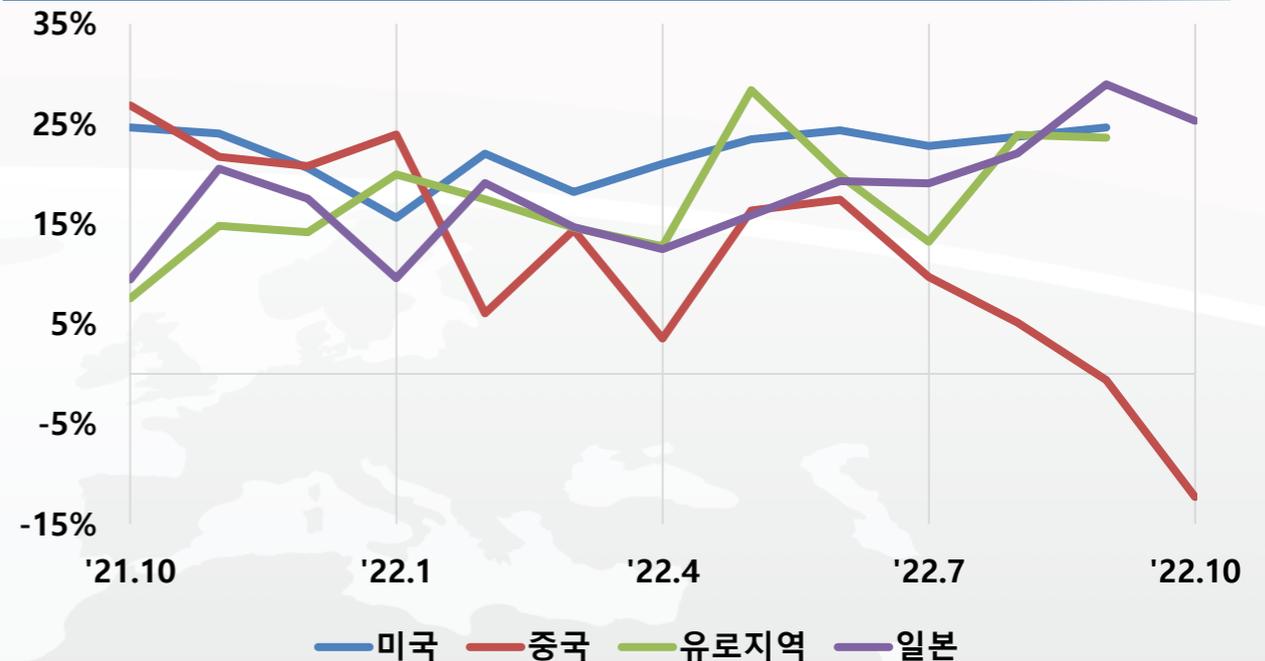
- (미국) 3분기 성장률(+2.6%, 전기 대비 연율) 개선, 10월 산업생산 및 고용시장 부진,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보다 큰 폭 하락**
 - 10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.1%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위축, 10월 실업률 3.7%로 소폭 상승, 비농업부문 취업자 26.1만명 증가
 -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 대비 +7.7%로 전월(+8.2%) 및 예상치(+7.9%) 하회,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0.3%p 하락
- (중국)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 강화로 생산 및 소비 부진 지속, 대외여건 악화 및 생산 차질로 수출 감소**
 - 10월 산업생산 증가율 5%(전년동월 대비)로 하락하고, 소매판매 전년동월 대비 0.5% 감소하는 등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
 - 10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2%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역성장, PMI 지수(49.0)도 기준치(50) 하회
- (유로존)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**
 - 3분기 경제성장률 +0.2%(전기 대비)로 하락(2분기 성장률 : +0.8%), 9월 산업생산 증가율(전월 대비 +0.9%) 전월(+2.0%)보다 하락
 -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+10.7%로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함에 따라 ECB는 두 달 연속 75bp 금리인상(10.27)
- (일본) 생산 및 소비 부진, 엔화가치 급락으로 수출은 높은 증가세 유지(엔화기준)**
 - 9월 산업생산이 전기 대비 1.7% 감소하고 소매판매 증가율(+1.1%) 하락, 10월 수출 전년동기 대비 25% 증가, 소비자물가 상승률 +3.0%

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 기준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 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원계열 기준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
 자료 : Bloomberg

국내 경제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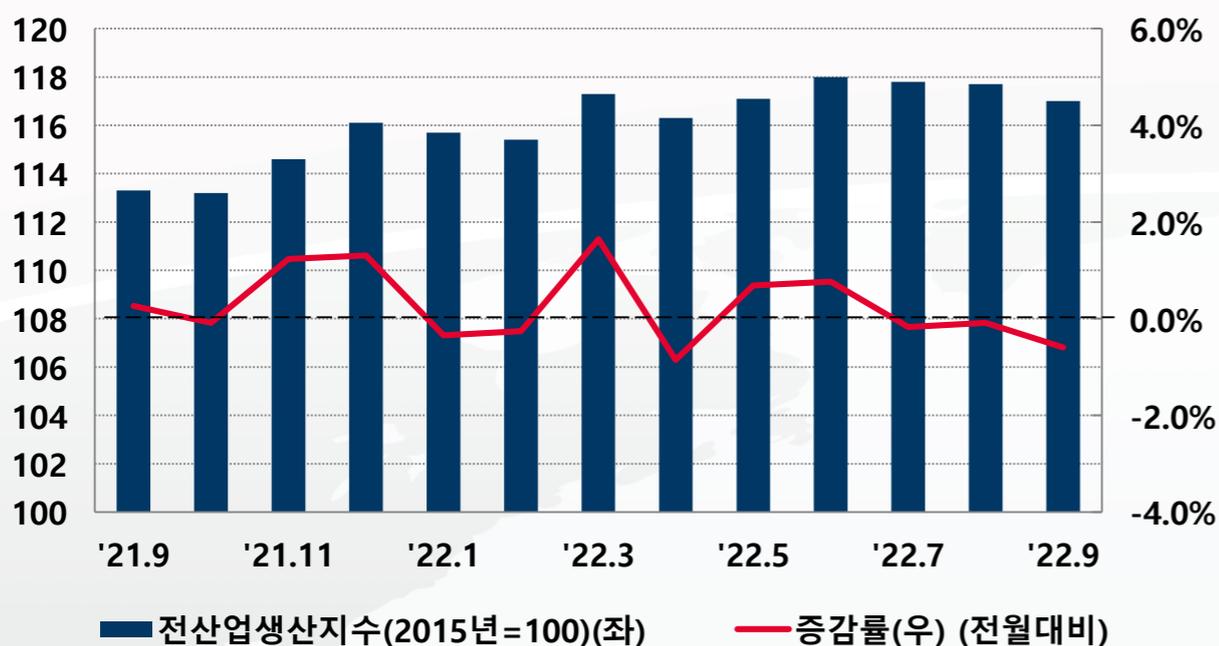
■ 산업 활동 :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감소, 경기 선행종합지수도 하락

- (생산) 9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·서비스업 등에서 모두 줄어 전월 대비 0.6% 감소
 - (광공업 : $\Delta 1.8\%$) : 통신·방송장비(+20.5%) 등에서 늘었으나, 반도체($\Delta 4.5\%$), 1차금속($\Delta 15.7\%$) 등에서 감소
 - (서비스업 : $\Delta 0.3\%$) : 정보통신(+2.4%) 등에서 늘었으나, 도소매($\Delta 2.1\%$), 보건·사회복지($\Delta 1.0\%$) 등에서 감소
- (경기) 9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99.2p)는 기계류 출하는 증가했으나 코스피 등이 감소해 전월대비 0.1P 하락 (기준치 100)

■ 수출 동향 : 중국 시장 위축,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 감소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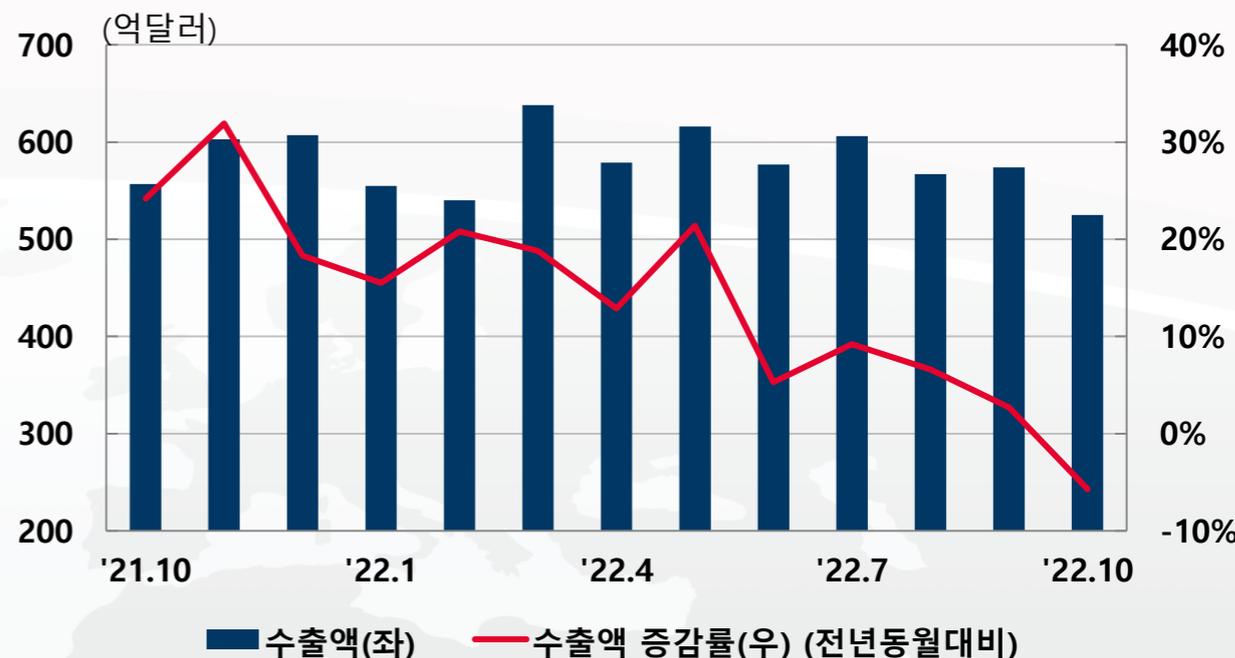
- 10월 총수출은 524.8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$\Delta 5.7\%$),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($\Delta 67.0$ 억 달러) 적자 지속
 - 미국·EU 수출은 증가,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중국 수입 규모 감소 등으로 중국($\Delta 15.7\%$), 아세안($\Delta 5.8\%$) 등은 감소
 - 자동차(+28.5%), 석유제품(+7.6%) 등은 증가 지속, 반도체 가격 하락 및 경기 둔화로 석유화학($\Delta 25.5\%$), 반도체($\Delta 17.4\%$) 등은 감소

전산업생산지수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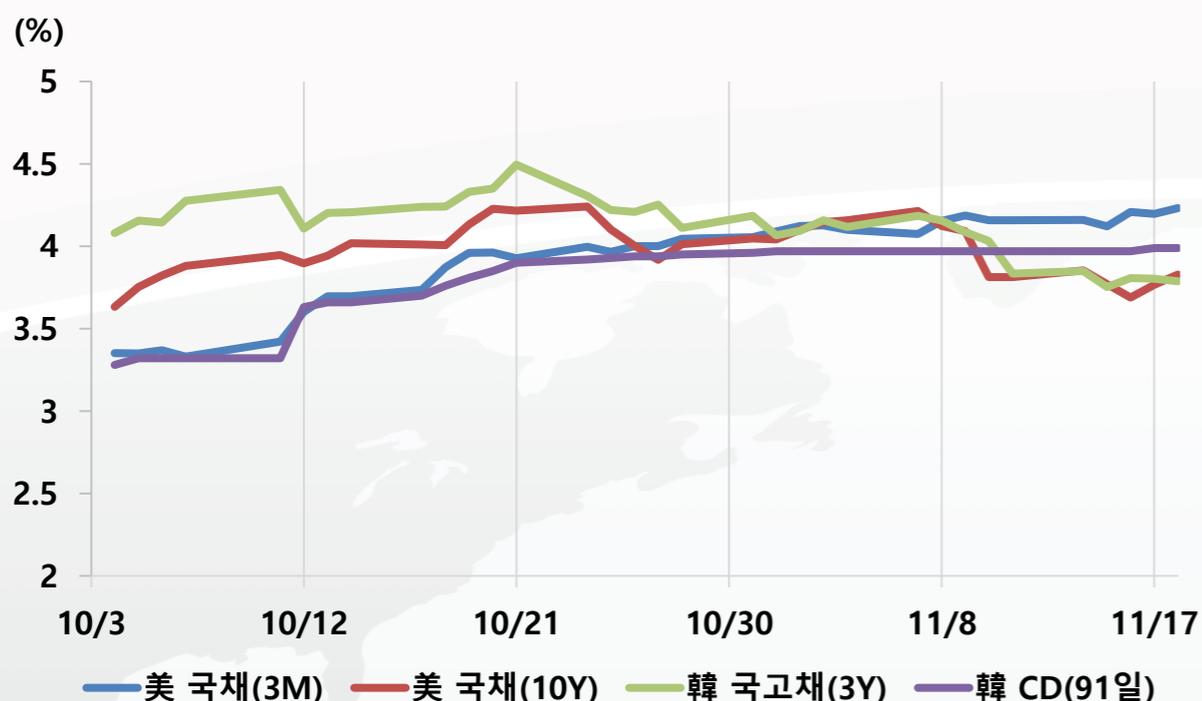
■ 금리 :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정에 따른 미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으로 장기물 금리 하락

- (미국) 미국채 금리(10년물)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예상밖 안정세, 실업률 상승 등으로 미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상폭이 50bp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.8%(11.18)까지 하락, 3개월물은 4.2% 상승세 지속
- (한국) 국고채 금리(3년물)는 미국 금리 안정세, 경기부진 지속, 회사채 시장 불안에 따른 유동성 공급 등으로 3.8%(11.18)로 하락, 단기물(CD91물)은 3.9%대 유지

■ 환율 : 원/달러 환율은 미달러화 약세로 급락 후 소폭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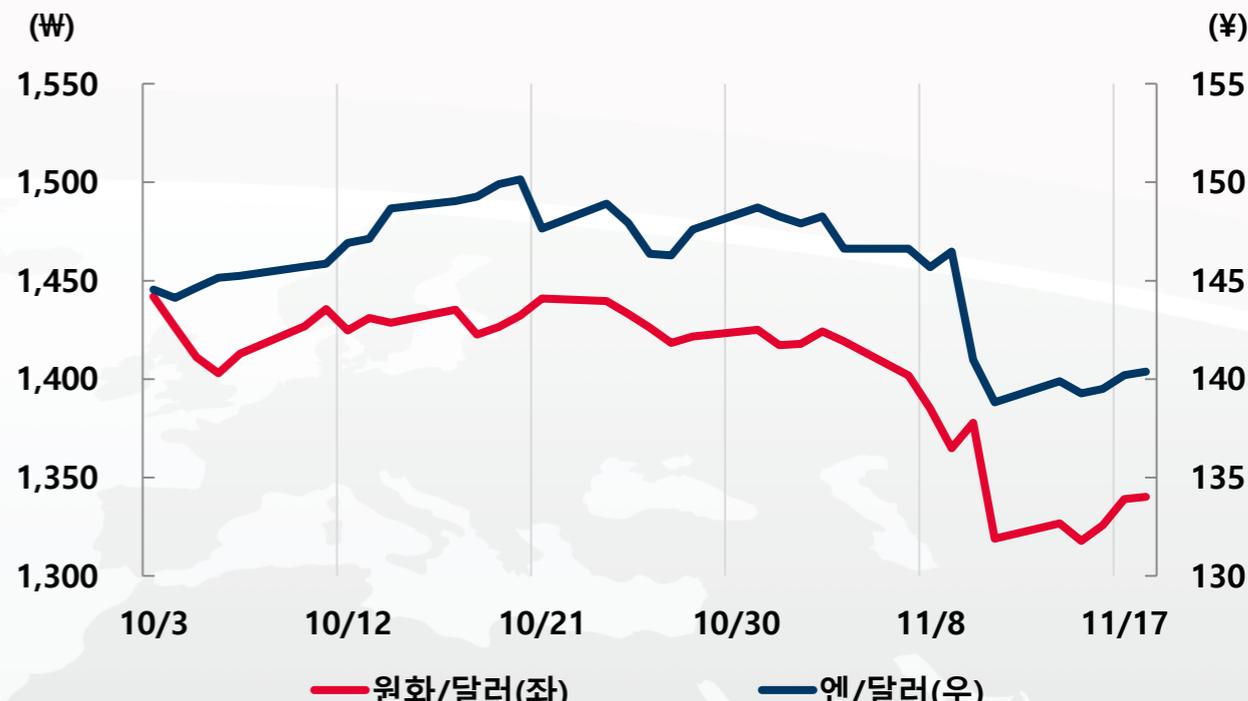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10월중 1,450원/달러 수준을 유지했으나, 미금리 하락 등에 따른 미달러화 약세, 외국인 주식 순매수(10.3~11.10간 5조 2천억원 규모) 등의 영향으로 1,320원/달러 수준으로 급락 후 반등
- (엔/달러 환율) 30년래 최고치인 150엔/달러 돌파 후, 미달러화의 주요 통화대비 약세,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개입 등으로 140엔/달러 수준으로 급락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한국은행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자료 : Bloomberg

원유와 천연가스 가격

■ 유가는 경기침체 우려 지속으로 하락, 천연가스 가격은 수요 증가 전망 등으로 상승

- (원유) 미국 경제지표 부진, 중국의 코로나19 사태 심화 등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가 확대되며 유가 하락, 11월 중순 배럴당 80달러 중반 수준(11.18일, 두바이유 \$84.35/bbl)으로 9월말 이후 최저치 기록
 - 미국의 10월까지 주택판매 9개월 연속 감소, 경기선행지수 8개월 연속 하락 등 경기부진 지속, 중국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수(2만 명 상회)의 상반기 상하이 봉쇄 당시 이후 최고치 근접 등으로 IEA는 11월 중순 세계 원유수요 전망 하향 조정
- (천연가스) 유럽의 가스재고 확보 등 공급불안 완화로 10월 중순 mmBtu당 5달러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유럽 가스가격 상한제 미실현 우려 및 미국 동절기 수요 증가 전망 등으로 10월 말 이후 상승, 11월 중순 6달러 수준 기록
 - 유럽연합의 가스가격 상한제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에 따라 가스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우려와 미국 동절기 난방수요 증가 전망으로 10월 말 이후 상승, mmBtu당 7달러선에 육박한 이후 미국 재고증가 전망으로 소폭 하락

국제유가 추이



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

10월 세계 발주량 및 한국 수주량 모두 양호

- 10월, 세계 신조선 시장은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월간 300만CGT를 상회하는 발주량을 기록**
 - 10월 세계발주량은 341만CGT(전년동월 대비 +18.7%), 10월 누적 발주량은 3,475만CGT(전년동기 대비 △27.5%)
 - 10월 한국 수주량은 143만CGT(전년동월 대비 +27.6%), 누적 수주량은 1,465만CGT(전년동기 대비 △8.1%)
 - 10월 한국 수주액은 39.7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43.0%), 누적 수주액은 389.8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△2.4%)
 - 10월에는 중국, 홍콩 및 중국 선사의 동맹 파트너인 CMA CGM 등이 대형컨테이너선과 LNG선을 발주하며 중국이 53%를 수주
 - 한국 역시 일본, 유럽 선사 등으로부터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을 대거 수주하며 양호한 실적을 기록
- 10월 선박 수출은 일감 부족으로 전월에 이어 부진한 실적 지속**
 - 10월 수출액은 15.0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△2.6%), 10월 누적치는 146.8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△18.7%)

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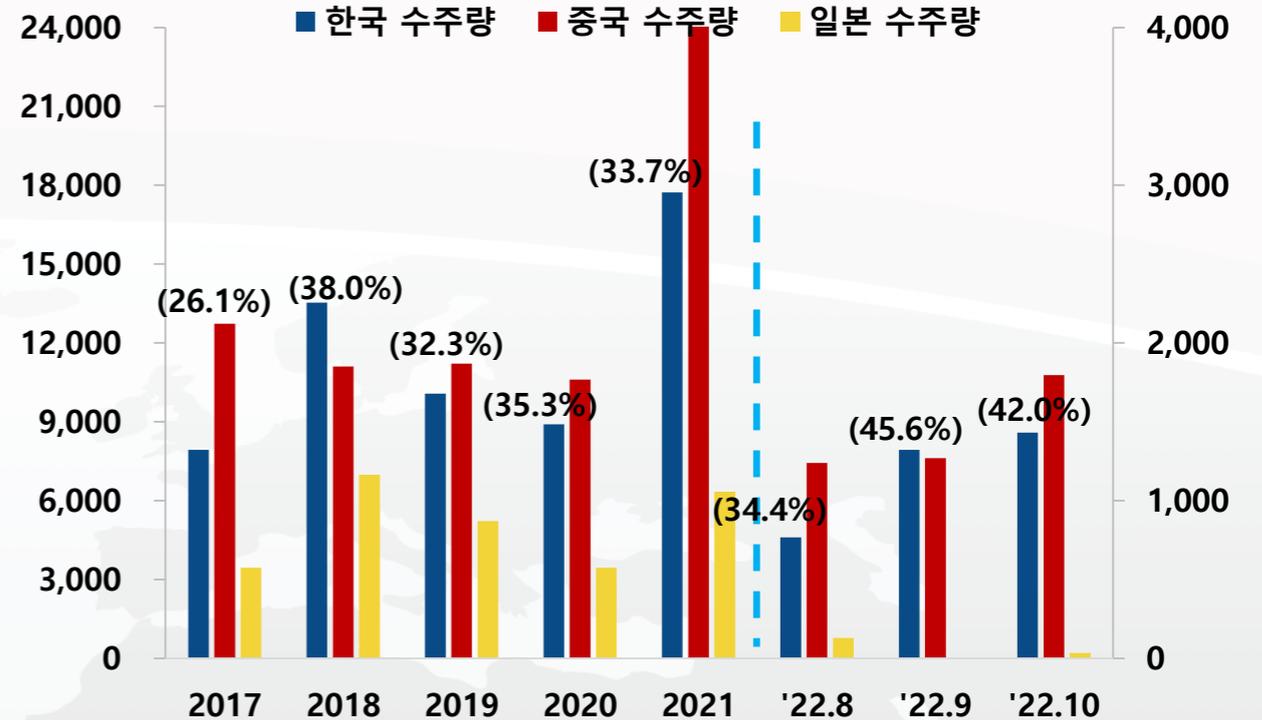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자료 : Clarkson

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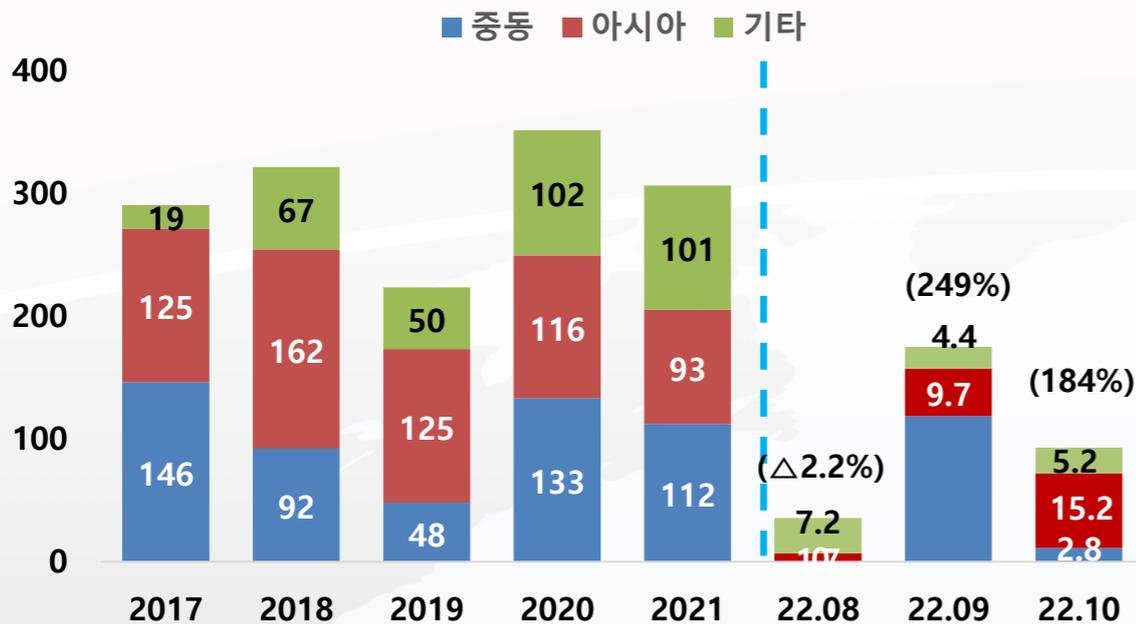
주 : 괄호 안은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
자료 : Clarkson

10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184% 증가한 23.2억 달러

- (지역별) 10월 수주액은 중동 2.8억 달러, 아시아 15.2억 달러, 유럽 3.3억 달러로 아시아 수주액이 10월 수주를 견인
 - 현대건설은 14억 달러 규모의 필리핀 남부 통근철도 프로젝트를 롯데건설 등과 공동 수주하고, 1.1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도 수주함
- (공종별) 플랜트 3.3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△ 54.8), 토목 15.7억 달러(15,600%), 건축 3.4억 달러(750%) 기록
- 10월까지 누적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35.7% 증가한 247억 달러이며, 아시아 수주가 107억 달러로 전체의 43%를 차지하고 중동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23.2% 증가
 - 글로벌 금리인상 및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, 올해 수주 예상치 32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전망

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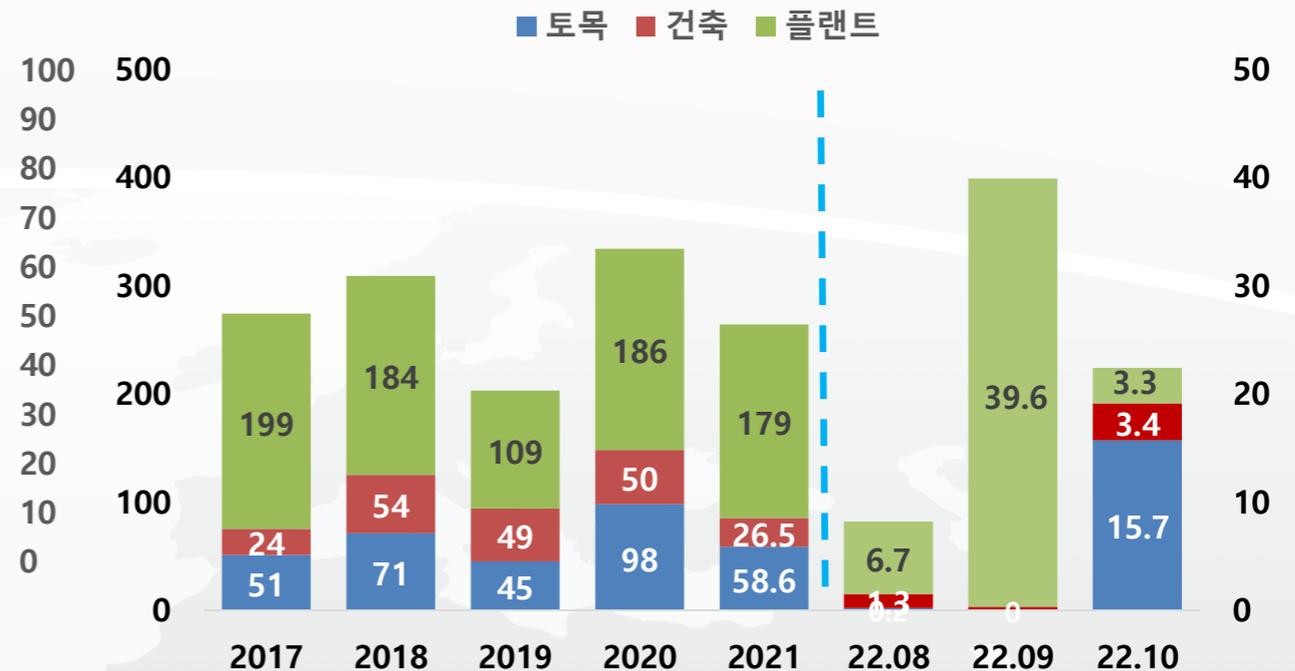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
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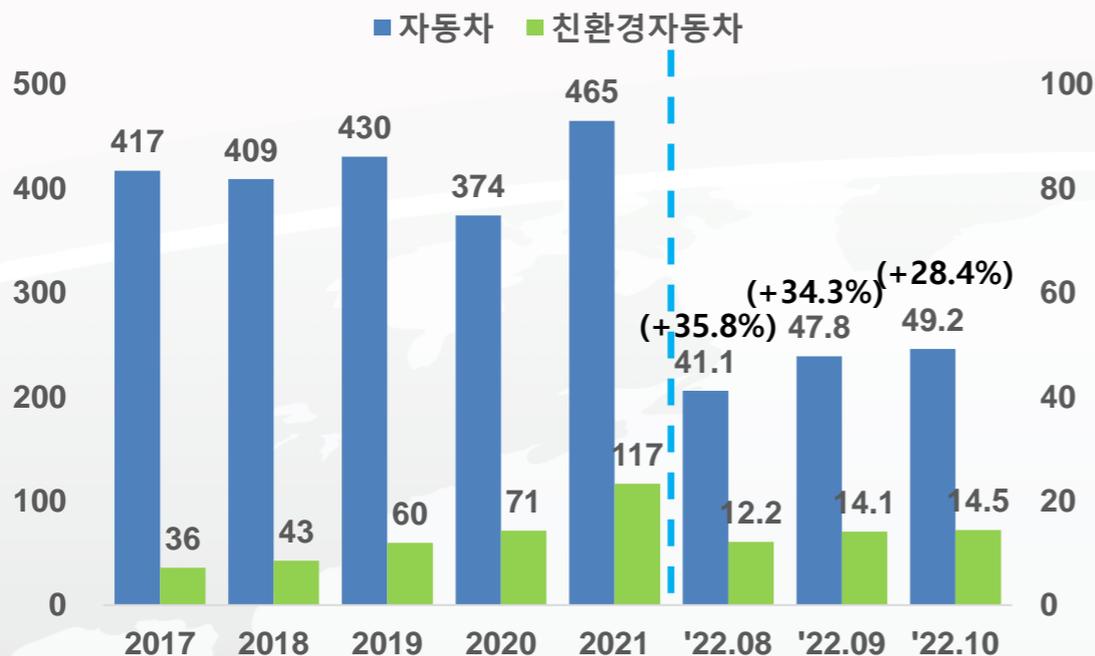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10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49.2억 달러, 18.4억 달러 기록

-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28.4% 증가한 49.2억 달러,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27.2% 증가한 14.5억 달러 기록**
 - 반도체 공급난 개선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자동차 수출대수는 30.2% 수출액은 27.2% 증가
 - 하이브리드 및 전기·수소차의 수출액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50.3%, 19.6% 증가하며 친환경자동차 전체 수출액 27.2% 증가
 - * 친환경 자동차 수출액 비중 : ('21년 10월) 29.7% → ('22년 08월) 29.6% → ('22년 09월) 29.5% → ('22년 07월) 29.4%
 - * 친환경 자동차별 수출 비중('22년 10월 대수 기준) : 하이브리드(56.6%), 전기차(37.7%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(5.6%), 수소전기차(0.2%)
-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3.1% 증가한 18.4억 달러**
 -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반도체 공급난 완화 및 국내 브랜드 자동차의 수요 지속으로 전년동월 대비 3.1% 증가
 - * 자동차 부품 대륙별 수출 비중('22년 10월) : 북미(35.4%), 아시아(28.6%), 유럽(20.7%), 중남미(11.6%), 중동(3.0%)

자동차 수출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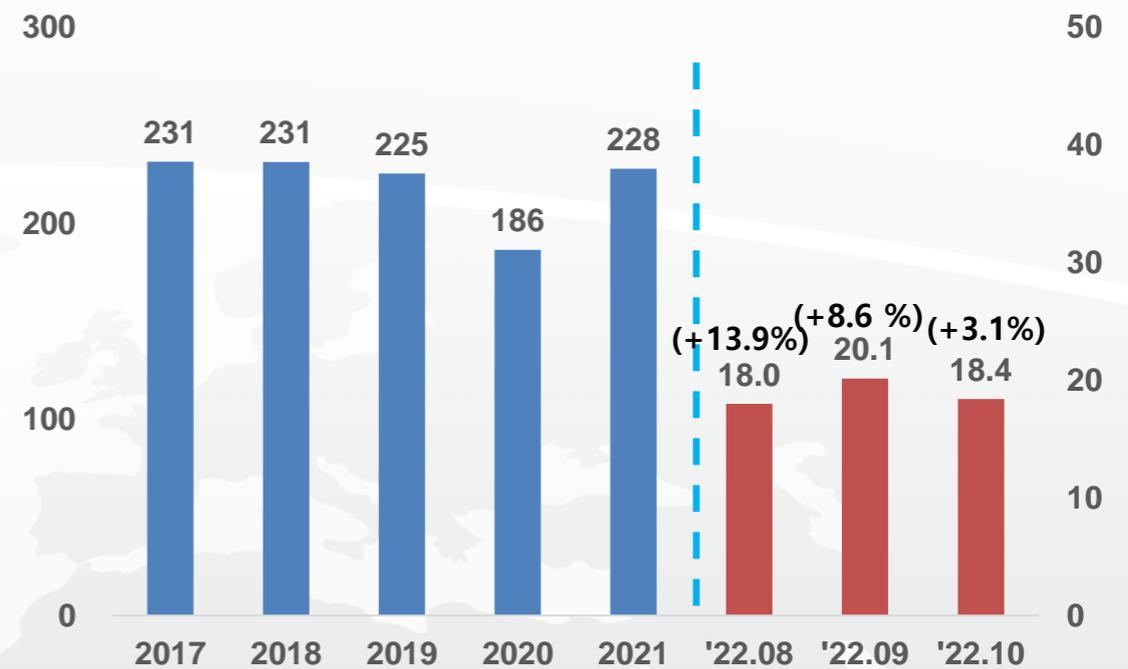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

자동차부품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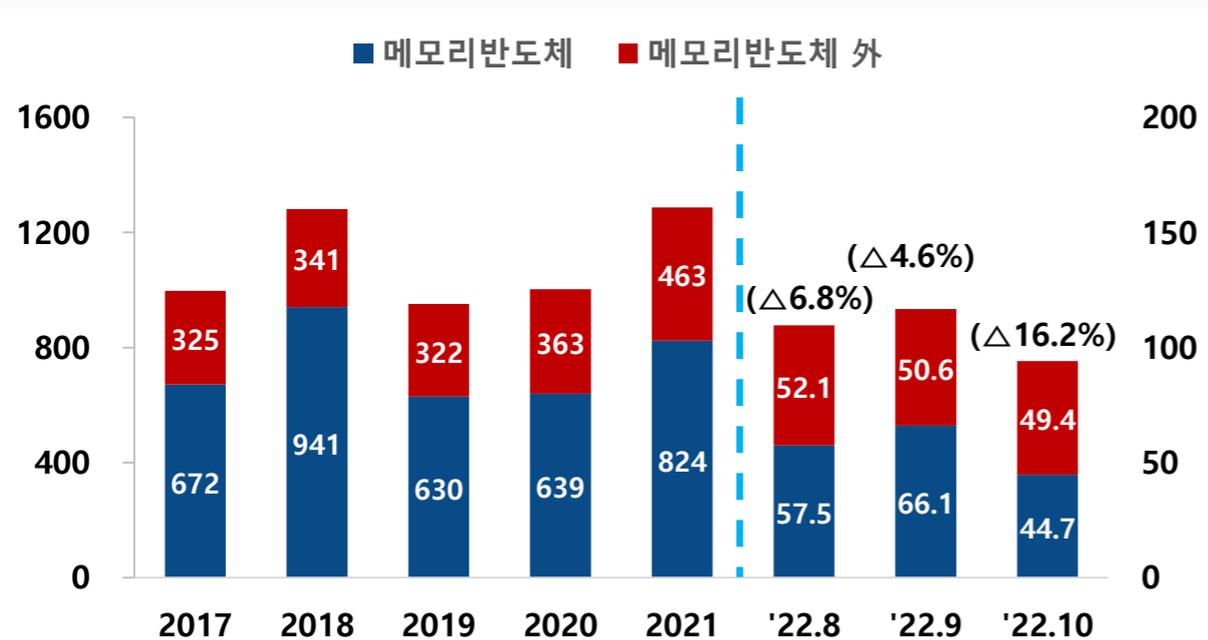
반도체·디스플레이

10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증가율, 각각 전년동월 대비 △16.2%, △9.6% 기록

-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6.2% 감소한 94.1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개월 연속 감소**
 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IT기기 수요 둔화, D램 가격하락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5.7% 감소한 44.7억 달러 기록
 - * D램 고정거래가격(DDR4 8Gb기준, 달러) : ('21.10)4.10 → (10~12)3.71 → ('22.1~4)3.41 → (5~6)3.35 → (8~9)2.85 → (10)2.21(D램익스체인지)
 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수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7.6% 증가한 43.8억 달러 기록하며 메모리반도체 수출규모에 육박
 - *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9% 증가한 34.1억 달러, 아날로그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1% 증가한 9.3억 달러 기록
 - ** 시스템반도체 수출가격지수(2015=100) : ('21.10)87.9 → ('22.1)89.0 → (4)89.9 → (7)91.2 → (8)90.7 → (9)94.7 → (10)96.8 (한국은행)
-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9.6% 감소한 20.3억 달러로 5개월 연속 역성장**
 - OLED 수출은 고부가 스마트폰용 패널(LTPO(저온다결정산화물))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.9% 증가한 14.3억 달러 기록
 - * OLED 수출가격지수(2015=100) : ('21.10)50.8 → ('22.1)50.6 → (4)52.1 → (7)53.9 → (8)54.4 → (9)55.6 → (10)57.0 (한국은행)
 - LCD 수출은 LCD 구조조정,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0.4% 감소한 3.6억 달러 기록

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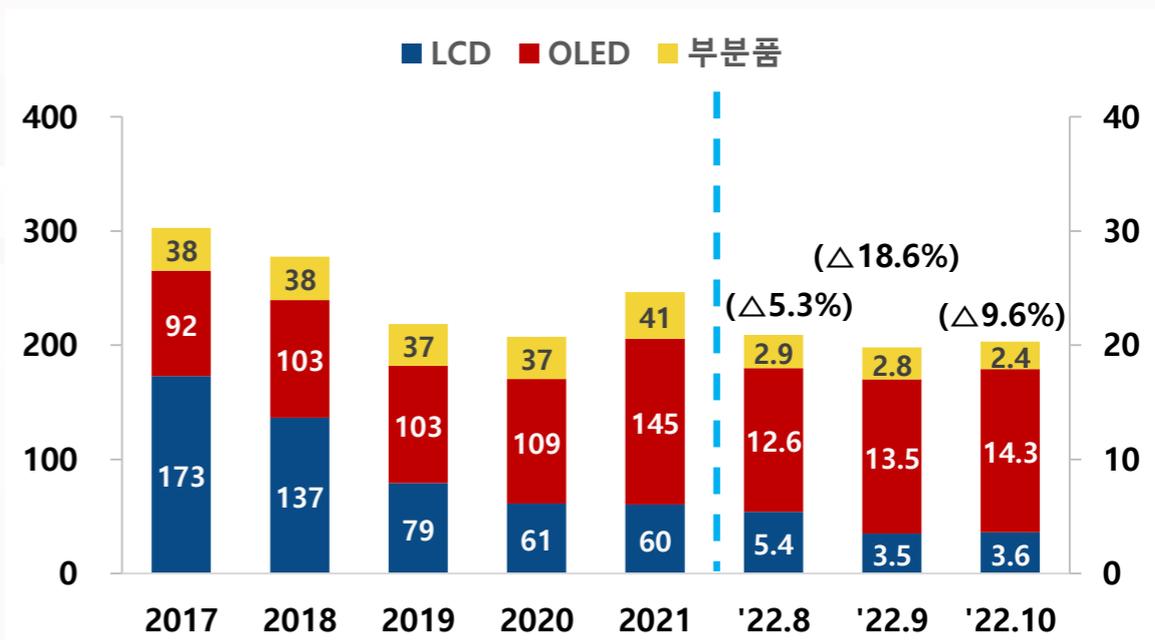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디스플레이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휴대폰·통신장비

10월 휴대폰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13.0% 증가, 통신장비 수출액은 17.6% 증가

휴대폰 수출은 주요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로 전년동월 대비 13.0% 증가한 15.5억 달러 기록

- (완제품)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ICT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(△ 28.8%)한 2.9억 달러 기록

*글로벌 수요는 감소했으나, EU와 캐나다의 수요는 비교적 견조: 캐나다(0.4억 달러, +1,714.7%), 오스트리아(0.36억 달러, +232.8%), 스웨덴(0.17억 달러, +55.5%)

- (부분품) 중국 국경 봉쇄의 기저효과로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년동기 대비 30.2% 증가한 12.7억 달러 기록

*對중국 부분품(MTI 8128)수출액 추이 : 1.8억 달러(7월) → 5.5억 달러(8월) → 7.7억 달러(9월) → 9.5억 달러(10월) (10월 누계 기준, 전년 동기대비 20.2% 증가)

통신장비 수출은 중계기 및 모뎀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년동월 대비 17.6% 증가한 1억 달러 기록

- (중계기 및 모뎀) 對미국·對유럽 수출액 증가세가 6개월 연속 지속되며 전년동월 대비 19.1% 증가한 0.98억 달러 기록

*주요 권역별 중계기 및 모뎀 수출액(9월) : 아시아(0.34억 달러, 전년동월 대비 △9.4%), 북미(0.3억 달러, +41.0%), 유럽(0.25억 달러, +117.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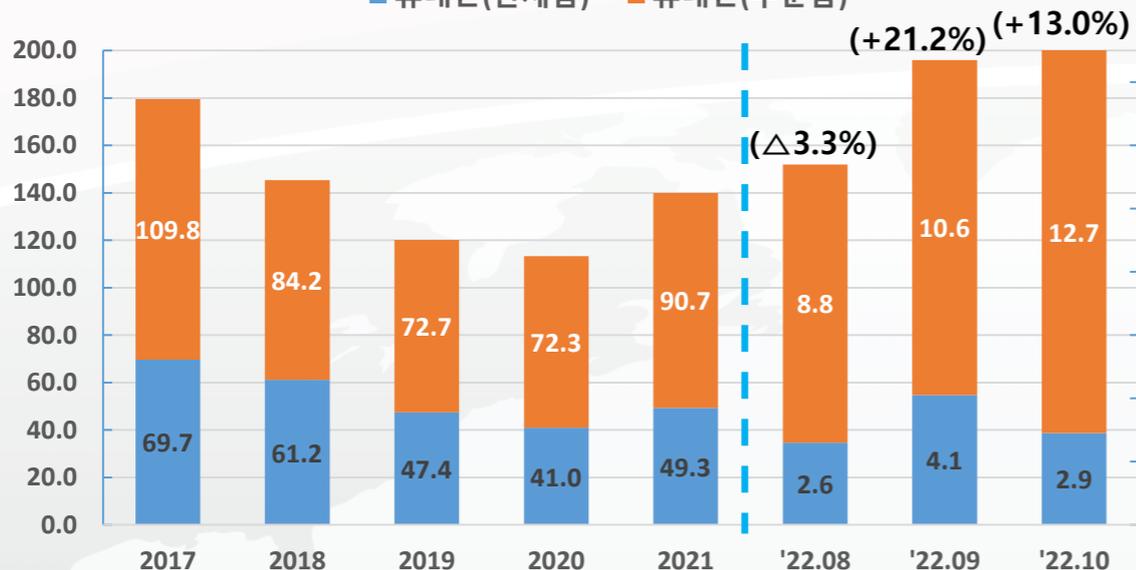
- (기지국 장비) 기지국 장비는 수출감소 추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 대비 44.3% 감소한 110만 달러 기록

*최근 3개월 기지국 장비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: 8월(△83.3%), 9월(△88.1%), 10월 (△44.3%)

휴대폰 수출액 (억 달러)

■ 휴대폰(완제품) ■ 휴대폰(부분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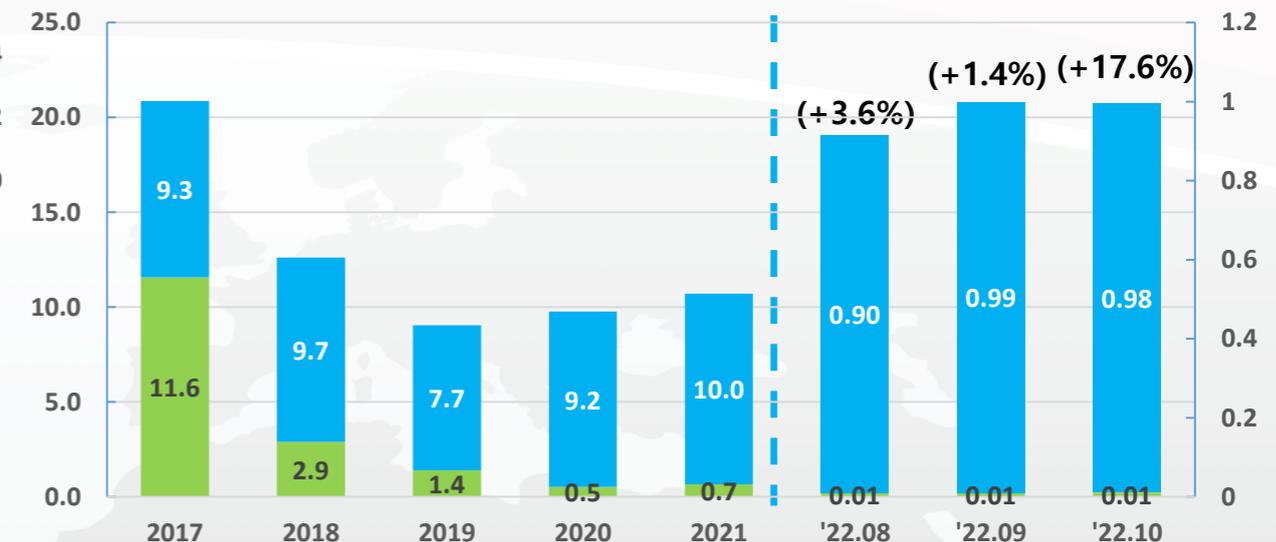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, 산업통상자원부

통신장비 수출액 (억 달러)

■ 기지국 ■ 중계기·모뎀 등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